



자유로운 전문가의 길을 준비하라

구본형 | 변화경영연구소장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젊은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자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에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묶여 있다. 외국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동시에 학점도 관리해야 한다. 지방대나 학교의 브랜드 파워가 약한 곳의 학생들은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마치 취업을 준비하는 장소가 된 듯 하다. 그래서 졸업하고 취직하기 쉬운 학과의 인기는 천정부지가 되었고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경기가 나아지면 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어느 정도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경기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나마 얻은 일자리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일의 성격도 단조롭고 수입도 신통치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밀려들게 된다. 직장의 안정성과 소득은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 양극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빈부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학교를 마치고 입사하게 되는 회사는 이 세상의 기댈 곳이었다. 소속감이 독립적 개성보다 중요하고 개인적 의사보다 집단과의 조화가 우선시 되었다. 그리하여 나를 나타내는 명함은 내가 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표상이었다. 조직은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노동의 세계와 우리는 바뀌어 가고 있다. 상시 구조조정과 시도 때도 없는 감원은 직원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던 가부장적 지배 구조의 뿌리를 흔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얻게 된 1997년 이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기업이 '평생직장'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개인의 수직적 충성도 사라졌다.

이제 조직인간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엇일까? 두 가지다. 하나는 바로 1인 기업가 혹은 프리에이전트라고 불리우는 자유 직업인들이다. 또 하나는 조직의 브랜드를 등에 업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개인화 된 정규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기업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지만 이미 1인 기업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 옮겨 다니는 직원, 2년에 한 번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 혹은 생 각 자체가 고용되었다기보다는 파트너로서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마케팅 전문가인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는 정규직 근로자의 세속적인 성공의 법칙을 경마에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승리는 말과 기수의 기량에 달려

“

자유로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인 테크닉과 기술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며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능과 행동 유형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

있다. 성장력이 강한 브랜드 명성이 뛰어난 기업은 '좋은 말' 과 같다. 또 나에게 기회를 주는 유능한 상사 역시 '좋은 말' 에 해당된다.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동료 역시 이 '좋은 말' 에 해당된다. 이기려면 우선 좋은 말을 가려 골라 탈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말' 이란 그러므로 전략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신통치 않은 회사에서 냉정하고 무능한 상사와 함께 적대적인 동료에 휩싸여 일하게 된다면, 아무리 유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치 절름발이 말에 올라 탄 기수 같다. 이기기 어렵다.

반면, 말만 좋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영리하고, 가볍고, 대범한 좋은 기수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기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계발은 자기 내부에 있는 힘과 빛을 끌어 올려 꿈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인 프리 에이전시(Free Agency)는 이제 개념이 아니라 조직인간을 대체해 가는 분명한 사회적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적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 사회도 젊은이들 10명 중 3명은 '자유로운 전문가' 의 길을 걷고 싶어한다. 그들은 조직에 묶여 죽어라고 일만 하는 대신, 돈도 벌고 여가를 즐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길 원한다. 고용 당하는 대신 스스로를 고용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길이다.

자유로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인 테크닉과 기술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며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능과 행동 유형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일에 자신만의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바로 그것들을 알아내야 한다.

이런 가정 아래 자유로운 전문가의 길을 준비하는 몇 가지의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명쾌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여러 가능성 중에서 특정 가능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갈림길 중에

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듯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규정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다. 낮에 꾸는 꿈이 중요하다. 꿈이 현실 속으로 침투 할 수 있도록 하라.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다. 견고한 현실의 틈을 깨고 그 사이에 아름다운 꿈이 하나 자라게 하라. 싱싱한 꿈, 그것 또한 구체적 현실이다.

둘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곳,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 공부 시작해야 한다.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요리를 시작해야 한다. 꿈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서는 결코 꽃을 피워 낼 수 없다.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걸어라.

셋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가장 단단한 곳에 기둥을 세워라. 강점 위에 모든 것을 건설하라. 그것이 튼튼한 삶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자신의 강점을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때는 먼저 강점이 아닌 것은 모두 버려라. 남은 것 중에서 몇 개만 골라 집중 개발하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능히 유쾌하게 먹고 살 만하다.

넷째, 세계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라. 자연을 대하는 법, 아이들을 교육하는 법, 생각하는 법, 음식을 만드는 법, 말하는 법, 심지어 숨쉬는 법의 차이를 감지해라. 한 분야에서 성공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것이 창의력이다. 사람 사는 다양성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벽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좋은 법은 여행이다. 더욱이 여행은 즐거운 일이고 배낭을 메고 세계를 누빌 시간은 아마 이때 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하라.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도와라. 좋은 동

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대신 늘 자신과 경쟁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적대감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차별성이다. 또 동료에게 오래 동안 정성을 다하라. 이것이 휴먼네트를 만드는 비결이다.

여섯째, 자신을 팔아라. 외모와 미소를 팔아라. 재능과 기질과 취향과 지식을 팔아라. 자신을 팔 수 없으면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절대로 영혼은 팔지 말아라. 영혼을 잃게 되면 인생도 잃게 된다.

우리의 내면에는 무궁무진한 재료와 힘이 있다. 마치 눈부신 빛과 같다. 이것을 찾아내어 직업화시킬 수 있다면,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존재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나다운 일이라면, 세상은 살 만한 것이 되고, 기쁨에 가득 찬 날이 될 것이다.

오늘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미래로부터 성공을 빌려 오지 마라. 거짓 희망은 우리를 속인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 담겨 있던 모든 불행들과 함께 섞여 있던 것이 바로 '희망' 이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단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지 마라. 그것은 미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차용해 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와도 그 미래 역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는 이미 와 있고,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오늘을 딛고 일어 서야 한다. **44**

구본형

서강대와 동 대학원에서 역사학과 경영학을 이수하고 한국 IBM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구분형 변화경영 연구소장으로서 주로 현장에서 경영혁신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하는 변화경영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기업체나 단체, 대학교, 대학원에서 초청 강의를 기졌으며, 언론 매체에 고정 칼럼을 갖으며 매체 강의 또한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대, 스스로를 고명하라」 외 다수가 있다.